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7호 [루게 제23169호] 주체99(2010)년 8월 5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범기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홍석형동지, 태종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건설지휘부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현일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서 맞이한 발전소건설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4년전 9월 건설장에 찾아오시어 주신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온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금야강군민발전소는 드디어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며 거연히 솟아올랐다.

건설자들은 발전소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년과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 선물로 드릴 충성의 일념을 안고 가장 어려운 작업대상의 하나인 연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데 이어 발전기조립공사를 비롯한 나머지공사들을 마감교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금야강상류에 거대한 연계가 쌓아져 대인공호수가 형성된 결과 막대한 량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었을뿐아니라 많은 면적의 농경지들에 생명수를 충분히 대주고 금야벌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완공단계에 들어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조선의 기상인 양 산협을 가로지르며 하늘높이 솟아오른 거창한 연계와 푸른 물 출렁이는 대인공호수, 집채같은 대형발전기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또 하나의 만년 재부인 금야강군민발전소가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07군부대와 제5수력발전소건설기업소, 함경남도돌격대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여 자랑찬 위훈을 떨쳤을뿐아니라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군민건설자

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악전고투하여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인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을 자기의 힘으로 훌륭히 완성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놀라운 기적은 당과 수령과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과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자랑찬 시위로 되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창작한 그림들과 작품집들을 보여주시면서 건설과정에 그들속에서 무수히 꽃피던 미담들을 들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감동적인 화폭들과 글쭙마다에 고통치는 건설자들의 순결한 량심의 호소를 읽으시고 체험자만이 뜨겁게 느낄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잘 반영된 좋은 작품들이라고 하시면서 투쟁과 노래속에 위훈을 빛내여가는 그들의 참된 삶을 높이 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 전국도처에

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하여질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전변은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거세찬 승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야강군민발전소는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야강군민발전소는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잘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감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을 와닥닥 끝내자면 대안중기계획합기업소를 비롯한 현관단위들에서 공사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제기일에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내달린다면 이제 남은 건설공사를 당앞에 맹세다진대로 제기일에 끝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은 혁명적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근인정신,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건설자들의 투쟁기세는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맞게 지휘성원들이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완강한 실천으로 전투원들을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승리자의 영예를 빛나게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금야강군민발전소의 전체 건설자들은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일터에 친히 찾아오시어 따돌이 고무격려해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단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완공 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실 확고한 신념을 안고 서성구역 하신동초급당 12세로 당원들과 화학건설연합기업소 세멘트분사업소 소장 송만호, 평양지하상점 로동자 리영심, 대외건설지도국 산하단위 통역원 조광남, 강남군편의봉사사업소 로동자 김정순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모란봉구역 북새총합진로소 종업원들과 강계농림대학 학부장 김유권은 금수산기념궁전지구의 수목원에 푸른 숲이 우거지고 갖가지 꽃이 만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었다.

체육성 대외체육교류사 로동자 리정혁, 중앙동물원 로동자 유성희는 여러해 동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것을 비롯

하여 대생산혁명렬사용 관리사업에 지성을 다하였으며 서성구역 편우동사무소 최옥실과 그의 가정은 20여년간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는 등 장산혁명사적지를 훌륭히 꾸리는데 진심을 바치였다.

고려의학과학원 해당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영예군인들을 돌봐주는것을 웅대한 본분으로 여기고 치료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중구역 동성락아소 로동자 김명희, 평양청년력겨릴 차승무대 로동자 김봉철은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세운 특류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 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며 강성대국건설에 동참계 이 바지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주공화국 초대대통령의 가족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주공화국 초대대통령 까짜부부의 가족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선물이 7월

28일 민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함 경 북 도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함경북도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가 7월 31일에 진행되였다.

도내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오수용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회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9 (2000)년 8월초 함경북도내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책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서두수발전소를 돌아보시며 이곳 생산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성천을 따라 계단식으로 건설된 발전소들에도 들리시어 도에서 자체로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있는데 대

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완공단계에 이른 어랑군 어대진의 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큰일을 하였다고 치하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도내 전반적공업부문에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 10년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철강재생산을 높이고있으며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많은 철정판을 생산하여 제철, 제강소들에 보내주고있으며 라남관광기계련

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하여 성능높은 기계설비생산을 높이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서두수발전소, 청진화학발전소 등 전력생산단위들에서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어랑천발전소 1단계공사가 완공되어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말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구현하여 농업부문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고있으며 수산물과 소금생산 등이 활성화되어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위훈을 창조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 제강소들에서 주체철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체굴계단을 전망성 있게 형성하고 품위높은 철정판을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력공업부문에서 현존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어랑천2호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기계공장들에서 CNC화를 계속 추진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와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여기저기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안고 식량증산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당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